
 금융위원회		보 도 참 고 자 료				 금융감독원	
	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8.1.3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 강 영 수(02-2100-2530)				담 당 자	박 정 원 사무관 (02-2100-2531)	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 채 울(02-3145-7850)					김 용 태 전자금융팀장 (02-3145-7425)	

제 목 : 한국일보 1.3일자 “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한국일보는 1.3일자 “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”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...기존 투자자는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까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늦어도 10일부터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.”라고 보도

< 보도 참고 내용 >

- 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,
-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전에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